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 설교

본 문 : 사무엘상 7:12~14

제 목 : 에벤에셀로 지켜주소서

2022년도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속에서 신바람 나는 생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고, 신명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창조의 날이 마쳐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한 번 음미해 보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가 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둘째 날을 제외하고 날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극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 보세요. 극한 기쁨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도 그 자녀 업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 창고이신 분이잖아요.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신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간이나 쓸개 다 빼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덩달아 기쁘고, 내가 신나면, 하나님도 덩달아 신나는 겁니다. “에벤에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인간이라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야, 즐거운 거고,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쁜 겁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가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표어를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처음 드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일이 생겨야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불신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늘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못자리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니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얼마나 마음이 몽클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걸 이기기 힘든 싸움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제사, 즉 예배가 있었죠?

회개, 그리고 금식을 동반한 기도, 그리고 예배 이 3박자가 모두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를 발하시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접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축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이방 대적 때문에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살아간다면 에벤에셀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적으로도 보장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회복은 그저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본전이나 찾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원래의 상태보다 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올 한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성도님의 삶과 신앙 위에도 역사적인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9일 설교

본 문 : 요한복음 2:1~11

제 목 :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 친근한 본문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입니다. 묵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포도주의 은혜이고, 때로는 내 질병을 치료케 해 주시는 포도주의 은혜이며, 주님과 내가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포도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수용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과 판단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요? 이거 어디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거 어디 믿어집니까?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고요, 시체 썩은 냄새까지 풍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안목으로 본다면은, 역설적인 예수님의 이 표현이 잘 납득이 안 되겠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사망 권세 깨드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인생을 4가지 감정으로 흔히 나타냅니다. “희노애락(喜怒哀樂)”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 4가지의 감정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왕이면 노와 애(화나는 일과 슬픈 일), 이것은 경험치 않고, 희와 락(기쁘고 즐거운 일), 이것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가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 사건에는 희락보다는 노와 애가 더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은 “비극”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거의 다 비극입니다. 그건 그의 삶이 비극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작품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나는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는 화가 나고, 정말 모두 뒤집어엎어 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슬픈 상황에는 그 순간 비관적으로 변해 버립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거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즐거움으로 터닝포인트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쉽지 않죠.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이 개선되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 잔치와 천국 잔치는 다릅니다. 세상 잔치는 술이 빠지지 않고, 고기가 빠지지 않고, 먹을 음식이 빠지지 않겠지만, 천국 잔치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도 하고, 비록 코로나로 2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2시(14시) 예배와 금요 심야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뭇 떨리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면서, 솔직히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기에, 왜 걱정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비록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은 허락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박수도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나가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신앙 다시금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즐겁고 신나고 기쁜 신앙생활! 올해는 이 교회와 성도님의 삶에 잔치가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늘 웃으며, 늘 반가워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 몸 된 제단에서 늘 보일 때, 우리는 이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설교

본 문 : 로마서 8:5~9

제 목 :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본문 5절, 6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행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해야 한 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이렇게 주의 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와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께 삶 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웬만하면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주로 듣는 말이 “사람의 성미가 바 꾸는가?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았어도 그 성격, 그 성미는 그대로더라” 물론 인 간은 성령을 받았어도,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성격이 어느 순간 고개를 살포시 쳐들고, 내 안에서 또 나를 주장하려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 지난 날과 똑같이 혈기를 낸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말과 행동에 전혀 은혜가 없다 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동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여도, 그 즉시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 안의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성령의 안타까움을 체휼(體恤)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자 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이것을 내려놓 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본 성은 언제든 성령님으로 인해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절로 변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변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약함이 강함이 되고, 단점이 강 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에 붙들린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나의 육신적, 소욕적, 안목적, 이 모든 세상 것들이 찌꺼기와 배설물처 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영의 생각과 영의 일 보다 항상 먼저 감각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신대로, 소욕(所欲)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것을 본 그 대로 인지하는 건 판단이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인지하는 건 판단이죠. 하지만 본 것이 있다 하더 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 올려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건 분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 올려져, 내 생각과 내 느낌마저 지울 수 있다면 그건 분별입니다. 아 담과 하와와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 잡고 있는지라, 선악과를 보고서도 그 어떤 탐스러움이나, 그 어떤 매력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사탄이 접근하여 미혹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끔 보입니다. 정말 그것을 먹으면 눈이라도 밝아져 하 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것을 본대로 인지하니,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인지하니,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분별하는 영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 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본대로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느낀 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느꼈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말하였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인지하여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그 땅의 거민(居民)들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목하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 보다, 자신이 느낀 것 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 씀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떨쳐 버리고,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품고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설교

본 문 : 사도행전 1:8

제 목 : 성령충만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분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하여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했어.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난 예수님 저주한다고.” 이렇게 뉘꼴뉘꼴 베드로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사람이 확 바뀌었죠. 이렇게 담대하게 이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이런 고백 하시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건 내 맘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맘을 주시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은 물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결코 성령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 맘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의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은 예고된 시간이 아니었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기다린 시간이 10일이었던 것이었고, 그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받기 이 전까지 제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 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행동반경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의 행동반경이 늘어났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묶어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묶여 있는 것을 풀게 하시고, 잠겨 있는 것을 열게 하시죠. 우리의 좁은 소견을 넓게 확장시키고자 하시고, 우리의 가시거리를 넓히시는 겁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육의 가시거리는 사람들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시력에 맞는 안경을 써서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가시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가시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 영의 가시거리를 얼마나 넓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이라는, 불투명의 각질이 눈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가시거리는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비늘이 눈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가시거리는 제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영적 시야는 확보되지 못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올 한해는 ‘우물 안 개구리 신앙’을 청산하시고, 더 넓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삶 속에서 체험도 해 보시고, 증인 된 삶도 한 번 살아보십시오. 이제는 성도님의 다퉈움이 **충만**이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은혜 충만하시네요” “권사님은 말씀 충만하시네요”
“집사님은 기도 충만하시네요” “성도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네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해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2022년 1월 30일 설교

본 문 : 민수기 13:25~33

제 목 : 광야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제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贖越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당을 지어, 모세를 반역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보니, 이 광야에서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요? 아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약속. 이걸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도 보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즉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죠. 이게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9-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어도 이들은 과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입니다. 바이러스도 전염병이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그냥 평범한 바이러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시고, 진노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판을 치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다 하여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들을 광야로 내 모신 거 아닙니다. 만나를 먹이셔도 배불리 먹이셨어요. 토요일에는 주일 것, 이들 치 분량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그들의 갈증이 다 해결되어 질 정도로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있어도 그 때 뿐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제 고백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을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투정은 그만 부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삶으로 우리 삶이 진정 변화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걸 본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느낀 것을 느낀 대로 그대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보고 느낀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떠 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을 먼저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투정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 한량없는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2월 6일 설교

본 문 : 출애굽기 20:4~7

제 목 :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인간의 질투는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신앙의 차원이고 관계의 차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면서까지, 1계명과 2계명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상송배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게 이상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입니다. 그러니 이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속성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환심을 사려면, 사실 그 자체 근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대 과장을 하는 거고, 현혹을 해서, 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이상송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탐심의 마음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짓된 것에 마음을 쏟고, 과장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같은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 보십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나를 억압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뺨기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종속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억압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우리 안에 이상을 두면, 우리는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중독현상이죠. 누구나 성, 스포츠, 술, 마약, 도박, 일, 운동, 요즘에는 핸드폰까지. 뭐든지 지나치다 싶으면 다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뭘라도 한 군데 미쳐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집념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열정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집념이 집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어찌 그리 쉬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은 자꾸 합리화시키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합리화입니다. 이상은 자꾸만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합리화시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중독돼야지’ 하고, 술을 먹는다는지, 담배를 핀다는지, 마약을 복용한다는지 하는, 이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어라! 생각보다 괜찮네.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습관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십계명의 2번째 계명과 3번째 계명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이상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망령되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정상참작 하시겠지’ 이럴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실 분 아니에요.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안 하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이상적 요소들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어리석음도 다 빼내어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2월 13일 설교

본 문 : 고린도전서 13:1~4

제 목 : 성령의 열매 (사랑 1)

세상에는 열매라는 게 있죠. 농사를 짓는 것도, 나무를 심는 것도, 밭에 파종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 내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2월은 “사랑을 실천하는 달”로 선포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 매 믿음의 성숙을 위해 더욱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으실 땐, 하나님이 그 때부터 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험도 환란도, 그 어떤 것이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낙망치 마시고, 오래 견디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는 건 견뎌내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오랜 시간 견뎌내는 것, 이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선대(善對)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도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얼마나 기막힌 친절이고 온유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각각 성품과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든, 사건 앞에서든, 이 온유함의 사랑을 늘 소유하기 위하여 늘 내 자신과 싸워 나가십시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게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게 한 마리가 바구니 둘레를 기어 올라가려 하면, 다른 게 쫓아와서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투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게를 담은 바구니를 보면 지금의 우리 정치판을 보는 거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현상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하여 우리 믿음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혜를 쏟게 하고, 은혜가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인간의 악한 본성 중의 하나인 시기, 질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즉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월 한 달은 더욱 많이 사랑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2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2월 20일 설교

본 문 : 고린도전서 13:4~5

제 목 : 성령의 열매 (사랑 2)

오늘도 사랑 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참 보배를 소유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로마시민권? 그거 포기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았거든요. 진짜 사랑을 알았거든요. 자랑을 하시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내가 택한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시면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탄과 대화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중 옴을 주의하여 본 적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사탄에게조차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시기, 질투로 인해 옴이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시는 했지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다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자랑삼고자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속성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속성은 죄악의 뿌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죄의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대표적인 것 두 개만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교만과 시기(질투)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외면적인 명백한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게 된 인간의 본성 두 가지는 교만과 시기(질투)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한 맘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 준 그 마음이 교만이었고, 시기, 질투였는데, 그 악한 본성은 지금까지 계속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 하십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도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의를 모르고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 무례하다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 이건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아집이요, 집착이요, 욕심입니다. 이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방자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방자함”은 철이 덜 든 어린 강아지 또는 훈련이 덜 된 개를 풀어놓으면 천방지축 엉망진창인 것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 다 우리의 인격과 인성 모두 깊은 관련이 있겠지만,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례함”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오랜 친구이고 이웃이라 할지라도 무례함이 계속 나타나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무례함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소원도 부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서든,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례함도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잠 21:24)**. 무례함과 교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상대방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내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한 번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3가지 사랑으로 성도님의 삶이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7일 설교

본 문 : 요한복음 2:1~11

제 목 : 은혜는 바닥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면 잘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이까요? 세상이 잘 안 보이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사물도 잘 안 보이고, 바닥은 주로 어두컴컴한 자리. 그래서 바닥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바닥까지 내려가야 잘 느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존재,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보니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던 것인지. 그 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닥의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시고자 하실 때는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조금만 낮춘다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신없도록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정신을 잃게 하시기 위한 낮추심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한 낮추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존재감은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그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탄이 선불리 한번 예수님 건드려 봤다가 36계 출행량을 쳤죠. 이때의 존재감은 사탄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2번째 존재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 이 이적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첫 이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탄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두 번의 존재감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감이 나타났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죠. 하늘의 위엄과 존귀 영광, 권세 다 내려 놓으시고, 이 땅에 천한 마구간으로, 바닥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누가 부축을 해 주어야 걸어다니는 것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고약한 놈인가 하면은요, 그런 예수님을 성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걸기조차 힘든 분한테,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업어서 올라갔겠어요? 사탄은 이렇게 야비하고 교묘한 놈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닥은 사탄이 생각하는 바닥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바닥은 은혜가 나타나는 첫 시작점이라는 것을 사탄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나타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집, 여기서의 존재감도 어떨 때 나타내신 것입니까?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을 때, 그 때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포도주가 만약 다 떨어져 바닥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하객에 불과한 겁니다. 기적은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닥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닥은 새로운 시작이요,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들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난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 "**바닥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이미 건강의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물질의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인간관계의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닥 믿음은 반전의 시작입니다. 바닥 믿음은 역전의 서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바닥 안 나 본 사람이 돈의 가치 정말 알 수 있겠습니까? 건강 바닥 안 나 본 사람이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 알겠습니까? 인생 바닥 안 본 사람 예수 구원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닥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닥 난 인생을 부르시고 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바닥 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 못 했을 겁니다.

봄을 느끼기에는 조건들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주변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은 온전히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닥이 드러난 물통에 포도주로 찰랑찰랑 가득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3월 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

본 문 : 마가복음 14:32~42

제 목 : 겿세마네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12제자를 데리고 겿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 성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피땀 흘리시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입니다. 겿세마네기도 없이는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결코 없었기에 사순절 맞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는 막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 보이신 겿세마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두 가지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겿세마네 동산”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쥐어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어렸을 세대에는 기름을 직접 짜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할머니가 기름을 직접 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방울의 기름도 더 담으시려고 온갖 힘을 다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겿세마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들어주시면 감사,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구하며, 온 열정과 땀을 다 바쳐서 쥐어 짜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 그 곳이 겿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태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이든지 사태파악, 상황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겿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인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는지. 오죽 제자들이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대 놓고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34절 말씀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33절 말씀만 보고서라도 사태파악이나,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피하시라**” 그냥 놀라시는 것도 아니고, 심히 놀라시고 슬피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알아차렸어야죠.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인데도,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대해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 주입 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직접 그 곁에서 보고 실제로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비록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인데,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형식이나 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겿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 세상은 스피드의 시대이며 속도의 시대입니다. 문명도, 사람도, 기계도 모두가 다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 중요할까요? 빨리 가면 뭐하나요? 방향이 다른데, 요나가 후다닥 서둘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하고 다른데. 기도도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4가지..

첫째, 과음, 폭식하면서 살 빼게 해 달라는 기도

둘째,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 달라는 기도

셋째,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기도

넷째,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 달라는 기도

이 4가지 모두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질서 가운데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신 겁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통하여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기도도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

본 문 : 마가복음 6:45~52

제 목 : 주님의 시간을 붙들라

본문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벳새다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셔야만 하셨을까요? 왕을 세우고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시기만을 제자들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제자도 불평하거나, 토 하나 말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만족한 시간 배부른 시간에 자리를 뜨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아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살진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 좋아하는 분이야!”

자! 보세요. 이 말씀만 본다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다, 제사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했던 갈릴리 바다에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바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배는 풍량이 불 때 언제나 뒤집혀질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행기가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는 오히려 안개가 무서운 것이고, 자동차는 눈길에 더 위험한 거겠죠. 배는요, 풍량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탄 배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저어야 가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행동을 한 번 보십시오. “힘겹게 노를 젓고” 역풍이 불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를 젓는 다 할지라도, 배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풍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있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게네사렛 땅이 아니었어요. 벳새다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풍이 불다보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바꾸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더 머무르고 있고 싶어했던 벳새다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잡고 있는 노를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를 젓고 있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노를 젓는 일밖에 없다.

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은 벳새다에 머무르는 것은 원치 않으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셨으니, 앞으로 가기 위해 노를 젓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 두려움에 휩싸여도, 괴롭고 고달픈 인생길이라 하여도,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언제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간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역풍 때문에 배가 자꾸만 뒤로 가는 거 같아, 제자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앞을 향해 노를 젓지만,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배가 멈춰 있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만 빈센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요”

그렇게 내 시간이 멈춰져 있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시간, 주님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

본 문 : 사무엘하 21:1~6

제 목 : 다윗처럼 기도하라

3년 동안의 기근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아쉬운 점과 다윗을 칭찬할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아쉬운 점은요, 기도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찾아요. 기근이 3년 때에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근 첫 해에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렇다면 기근도 그 때 멈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년 차 때에도, 그리고 2년 차 때에도 그 기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 같아요.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입니다.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람이 애굽의 바로(파라오)이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가 10가지의 재앙 때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첫 번째 재앙 때에,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다면, 2번째 재앙부터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시작해서 오미크론으로 진화된 바이러스의 공포와 재앙이 3년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2년 전 이맘때는요, 어떻게들 생각하셨나요? “이러다 이제 사라지겠지, 뭐 언제까지 가겠어? 유행으로 좀 돌다가 사그러질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하는 것이나, 손 세정제 바르고, 몇 명 이상 모여서 식사해서는 안 되는 것, 모두 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난이, 이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었는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애통해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였는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다윗의 칭찬할 점은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3년 동안의 기근의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다윗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과 그 집 때문이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풀어가야 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사울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대신 속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자신이 해결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나 사울 왕이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대할 때, 자신을 죽이려하는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사울을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결코 사울 왕이 아니야’ 지금 잠시나마, 악한 것에 조종당하여 저러고 있는 거야. 본래 본심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하는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떠나가게 하셨죠. 그러자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압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풍족함도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치 않기에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망각했을 때에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기도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타이밍은 항상 앞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디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18:9 ~ 15, 21:6

제 목 : 하나님이 미소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늘 웃으며, 늘 행복했어야 할 사라였지만, 솔직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삶은 고달팠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웃음짓고 살 만한 여건이 안 된 대표적 이유는 바로 자식의 문제였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첩에게 모멸과 멸시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경수도 끊어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 소망마저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보내시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황당함 그 자체죠.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 놓고 웃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하고 그냥 대 놓고 비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기에, 그들 앞에서 경망스럽게 대 놓고 웃지는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웃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고, 또 말씀 그대로를 100% 신뢰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둘째는 전적 불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거부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죠. 바로 왕이 그랬죠. 그냥 대 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겉 따로 마음 따로 순종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큰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내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지금 본문에서 사라의 태도는 전적 순종도 아니고, 전적 불순종도 아닙니다. 사라의 태도는 겉 따로, 마음 따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100%의 순종만 있든지, 100%의 불순종만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발만 척 걸쳐놓고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은 100% 불순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웃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순간 웃고 넘어갈 일처럼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은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 표현은 "내 말이 웃기니?" "내 말이 네게 듣기에는 우습니?" 이런 어감으로 들려지죠.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는 웃었어"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半信半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받들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다고 사라를 불경죄로 보우하신 건 전혀 없어요. 단지 말씀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 안되는 듯한 명령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나중에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21장 6절 말씀처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도다' 여기서 나오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앞에서 사라의 웃음은 분명히 비웃음,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환한 웃음입니다. 감격의 웃음이며,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감격과 환희와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